

〈일반논문〉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졸업생들의 국내 항일운동 - 3.1운동 참여 학생들의 이후 활동을 중심으로 -

김 상 태*

〈목차〉

- I. 머리말
- II. 서울·지방의 3.1운동 참여
- III. 3.1운동 직후 독립운동단체 참여와 의열투쟁 지원
- IV. 1920년대 항일 학생운동 주도와 신간회 참여
- V. 1930년대 초반 만주동포 지원활동과 보건운동 주도
- VI. 맺음말

[국문초록]

민족자결주의, 파리강화회의의 개최, 2.8독립선언 등에 영향을 받은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은 3.1운동 당시 서울의 1차, 2차 시위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런데 헌병, 경찰의 경계가 강화되고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가면서 3차 시위는 불가능해졌다. 이때 경성의전 학생 김범수는 전남 장성과 광주에서, 양봉근은 부산 구포에서 만세시위에 관여하였다. 이들의 활약은 3.1운동을 전국적인 독립운동, 거족적인 독립운동으로 폭발시킨 동력이 되었다. 또한 허정묵과 김상우는 일제의 식민통치의 실상과 본질, 해외 독립운동 소식 등을 담은 '지하신문'의 배포활동을 벌였다.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교수

3.1운동 직후 국내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계된 비밀 독립운동단체들이 결성되었는데, 3.1운동에 참여하였던 경성의전 학생들도 이들 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이의경은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의 편집부장을 맡아 언론활동을 벌였고, 김영철은 대동단의 인쇄물 배포를 시도하였다. 나창현은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대동단에 모두 참여하여 이강공 국외 탈출 계획에 가담하였다. 3.1운동 직후 국내에서 의열투쟁도 활발하였다. 이때 재학생 오태영은 강우규 의사의 은신과 비밀연락을 지원하였고, 졸업생 허영조는 부산에서 개원 중 의열단 단원의 요청을 받고 독립운동 자금 모금활동을 벌였다.

1920년대 초반 서울에서는 학생단체 '조선학생대회'가 창립되었다. 경성의전 학생인 이필근, 장세구, 이강은 제2기 지도부에 참여하였고, 특히 3.1운동에 참여하였던 장세구, 이강, 이동영, 양봉근, 허정목 등은 하기 지방순회강연단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그들은 강연에서 식민지 현실의 전반을 다루었으며, 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1921년 경성의전 학내에서 일본인 교수의 망언으로 인해 항일 학생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양봉근, 장세구, 전진극, 이동영 등 3.1운동 참여 경력의 소유자들이 동맹휴업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은 경성의전 학생들의 민족문제에 대한 고민과 사상이 심화되고, 졸업 후 의사 신분으로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0년대 후반 3.1운동 참여 경력이 있는 경성의전 졸업생, 중퇴생들은 신간회 본부 또는 지회의 간부로 활약하였다. 조선공산당의 핵심인물이 된 한위건은 신간회 창립준비위원, 신간회 간사로 활동하였다. 김탁원은 신간회 경성지회, 최경하는 목포지회, 정인철은 재령지회, 이강은 북청지회의 간부가 되어 민족연합전선을 위해,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양봉근은 신간회 울산지회장과 신간회 본부의 검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1931년 5월 신간회 해체 후 만보산사건과 일제의 만주침략으로 만주동포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때 김탁원은 1932년 1월 특사로서 만주의 수용소들을 방문하여 동포들을 치료하고, 서울에 돌아와 현지의 실정을 보고하였다. 1931년 12월 의료인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이 '보건운동사'를 설립하고 주로 농민, 노동자, 빈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양봉근을 필두로 김탁원, 유상규 등 경성의전 졸업생들이 보건운동을 주도하였다.

결국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경성의전 학생들은 1919년부터 1930년대 초

반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모든 유형의 항일운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경성의학전문학교, 3.1운동, 대한민국청년외교단, 대동단, 조선학생대회, 신간회, 보건운동사

I. 머리말

3.1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특히 3.1운동의 초기 국면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세력은 학생층이었다. 특히 3월 1일 이른바 민족대표들이 3.1운동의 지도부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학생층이 파고다공원의 독립선언식과 서울 도심의 1차 시위를 주도하고, 3월 5일의 2차 시위 역시 주도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서울의 1차, 2차 시위에 가장 많이 참여한 학생들은 관립학교인 경성의학전문학교(이하 ‘경성의전’) 학생들이었다. 경성의전 학생 중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학생만도 경성의전 전체 한국인 학생의 15.4%에 달했다.¹⁾

그렇다면 3.1운동에 참여하였던 경성의전 학생들은 그 후에도 항일 독립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을까. 혹시 3.1운동 참여는 당시 국제적 분위기에 따른 일회성 사건이었을까. 본 논문에서는 3.1운동 당시부터 1930

1) 자세한 것은 김상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3.1운동 참여 양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0, 2019 참조.

년대 초반까지를 대상으로 3.1운동에 참여한 경성의전 학생들의 이후 국내 항일운동 참여 양상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본 논문의 본론을 네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2장에서는 우선 3월 1일과 5일에 있었던 서울의 1차, 2차 시위에 참여한 경성의전 학생들의 면면을 정리할 것이다. 특히 경찰에 체포되어 공식 재판에 회부된 32명과 체포되지 않았으나 3.1운동에 참여한 것이 확실한 19명의 명단과 이력을 도표로 작성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어서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봉쇄된 상황에서 고향으로 내려가 지방의 3.1운동을 주도한 경성의전 학생들과 ‘지하신문’ 배포활동을 펼친 경성의전 학생들을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3.1운동 직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비밀리에 활동한 독립운동단체들에 가입하여 민족정신 고취와 독립운동자금 모금 활동을 벌인 경성의전 학생들을 소개할 것이다. 아울러 강우규 의거와 의열단의 활동을 지원한 경성의전 학생들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1920년대 초반에 경성의전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학생운동을 조명해볼 것이다. 서울의 전문학교 및 중등학교 학생 연합단체인 ‘조선학생대회’와 경성의전 학내에서 발생한 구보 교수 망언파동에 따른 학생운동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이어서 1920년대 후반 최대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의 본부와 지회에서 활동한 경성의전 졸업생과 중퇴생들을 추적하여 조명할 것이다. 5장에서는 1931년 신간회 해산 이후 큰 이슈로 대두된 만주동포 문제와 그에 대한 경성의전 졸업생 김탁원의 활동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아울러 경성의전 졸업생 양봉근이 주도한 보건운동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소개할 것이다.

필자가 이번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자료는 3.1운동 과정에서 체포된 학생들에 대한 각종 신문조서이다. 그 중에는 종로경찰서 순사의 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의 신문조서, 그리고 양적으로 가장 방대하고 내용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성지방법원 예심계 판사의 신문조서

등이 있다. 다음으로 「조선총독부 관보」, 「매일신보」, 「동아일보」, 「중외일보」, 『삼천리』, 『동광(東光)』 등 일제강점기의 신문, 잡지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경성의전 3학년 재학 중 3.1운동에 참여한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을 거쳐 독일에서 작가로 활동한 이미륵(李彌勒)의 자전적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3.1운동 관련 부분만큼은 사료에 버금갈 정도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어서 유용하게 참고하였다.²⁾ 경성의전 1학년 재학 중 3.1운동에 참여한 의사학자(醫事學者) 김두중(金斗鍾)의 회고담도 참고하였다.³⁾ 끝으로 신영전·윤효정, 김승태, 김상태의 기존 연구성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⁴⁾

II. 서울·지방의 3.1운동 참여

1. 서울의 1차·2차 시위 참여

1919년 1~2월 세계적으로 민족자결주의가 유행하고, 파리에서는 강화회의가 개최되었다. 2월 8일에는 재일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서울지역 학생층은 독립운동을 준비하였고, 추후 종교계의 3.1운동 추진 작업에 합류하였다. 이때 경성의전의 학생대표들은

2) 이미륵 지음·전혜린 옮김, 『압록강은 흐른다(개정판)』, 범우사, 2014.

3) 김두중의 회고담은 경향신문사, 『내가 겪은 20세기』, 경향신문사, 1974와 주간시민사, 『名士交遊圖』, 주간시민사, 1977에 수록되어 있다.

4) 신영전·윤효정, 「보건운동가로서 춘곡 양봉근의 생애」, 『의사학』 14-1, 2005 ; 김승태, 「한위건의 생애와 독립운동」, 『(사)대한민국역사문화원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9 ; 김상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3.1운동 참여 양상」.

처음부터 전문학교 학생대표 모임에 참석하여 3.1운동 추진을 주도하였다. 특히 한위건(韓偉健)은 독립운동의 필요성 제기, 전문학교 및 중등학교 학생대표들의 선정, 독립선언서 배부 등을 주도하며 학생운동진영의 최고 지도자로 활약하였다.⁵⁾ 김형기(金炯璣), 김탁원(金鐸遠), 최경하(崔景河), 유상규(劉相奎), 한위건, 나창헌(羅昌憲) 등 경성의전의 학년별 대표들은 학생들에게 3.1운동 계획을 전하며 시위 참여를 독려했고, 신문 기사와 소문 등을 통해 민족자결주의와 해외의 독립운동 소식을 알고 있던 경성의전 학생들은 그에 호응하여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3월 1일 파고다공원과 종로 등 서울의 도심에서 벌어진 1차 시위에 참여한 경성의전 학생은 최소 28명이었다. 김탁원은 파고다공원 앞에서, 김형기는 종로 '십자가'(보신각 앞)에서, 최경하는 동아연초회사 앞에서 해당 지역의 시위와 독립만세 제창을 주도하였다. 이익중(李翼鍾)은 종로 4가에서 시위를 선도하고, 군중 앞에서 독립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⁶⁾ 3월 5일 남대문 인근에서 벌어진 2차 시위에는 송영찬(宋榮璨), 장세구(張世九), 이강(李樞), 이형원(李亨垣), 전진극(全鎭極), 김창식(金昌湜) 등 경성의전 학생 6명이 참여하였다. 서울의 1차, 2차 시위는 3.1운동을 선도한 것은 물론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1919년 3~4월에 서울의 1차, 2차 시위와 관련하여 시위 현장이나 하숙집 등에서 체포된 경성의전 학생은 40명이었다. 8월 예심이 종결되면서 8명은 면소 방면(免訴 放免) 처분을 받았고, 32명이 공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당시 서울의 8개 전문학교(기타학교 포함) 학생 77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그 중 경성의전 학생이 32명(41.6%)으로 가장 많았다. 1918년 말 현재 경성의전의 조선인 학생은 208명이었는데, 그 중 32명(15.4%)이 공식

5) 한위건을 비롯한 경성의전 학생대표들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김승태, 앞의 논문 및 김상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3.1운동 참여 양상」 참조.

6) 자세한 내용은 김상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3.1운동 참여 양상」 참조.

재판에 회부되었다. <표 1>에 그 32명의 성명, 본적, 생몰연도, 연령, 학년, 졸업연도 등을 정리하였다.⁷⁾

<표 1> 공식 재판 회부자 중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32명 명단

성명	본적	생몰연도	3.1운동 당시 연령	3.1운동 당시 학년	졸업연도
金炯璣	경남 양산군	1896~1950	24	4학년	1921
金鐸遠	경북 대구부	1898~1940	22	4학년	1921
崔景河	함남 문천군	1894~1989	26	4학년	1921
金重益	평북 강계군	1896~미상	24	4학년	1920
宋榮燦	황해 안악군	1898~1966	22	4학년	1920
李奎璿	함남 장진군	1890~미상	30	4학년	1920
許永祚	경남 부산부	1897~1929	23	4학년	1920
姜學龍	평북 정주군	1893~미상	27	3학년	1921
金永珍	경기 수원군	1893~미상	27	3학년	1921
白麟濟	평북 정주군	1898~미상	22	3학년	1921
許益元	평북 용천군	1896~미상	24	3학년	1921
李翼鍾	경기 진위군	1898~1950	22	2학년	중퇴
羅昌憲	평북 희천군	1896~1936	24	2학년	중퇴
金養秀	평남 평원군	1900~미상	20	2학년	중퇴
李權	함남 북청군	1900~미상	20	2학년	1923
張世九	경기 김포군	1898~1931	22	2학년	1923
蔡禎欽	함북 경원군	1892~미상	28	2학년	1922
韓秉萬	함남 함흥군	1898~미상	22	2학년	1922
咸泰鴻	함남 함흥군	1893~1929	27	2학년	1922
吉瑛羲	평북 희천군	1900~1984	20	1학년	중퇴
金炳祚	평남 대동군	1899~미상	21	1학년	중퇴

7) 자세한 내용은 김상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3.1운동 참여 양상」 참조.

金鍾夏	함남 함흥군	1900~미상	20	1학년	1924
金昌湜	평남 순천군	1896~1970	24	1학년	1923
吳龍天	평북 철산군	1902~1931	18	1학년	1923
吳泰泳	함남 정평군	1895~미상	25	1학년	중퇴
劉完榮	평남 평원군	1899~미상	21	1학년	1923
李亨垣	함남 북청군	1899~1969	21	1학년	1924
全鎭極	함남 북청군	1893~미상	27	1학년	1923
鄭寅喆	황해 재령군	1899~미상	21	1학년	중퇴
玄昌燕	함남 함흥군	1900~미상	20	1학년	1923
黃龍珠	경남 동래군	1898~미상	22	1학년	중퇴
咸秉昇	경기 경성부	1896~미상	24	1학년	1922

그런데 경성의전에는 3.1운동에 참여하고도 체포되지 않아 재판을 받지 않은 학생이 적지 않았다. 필자는 재판을 받은 32명과 면소 방면된 8명 등 경성의전 학생 40명의 신문조서 및 다른 학교 학생들의 신문조서, 그리고 판결문과 회고담 등을 자료로 이용하여 적어도 19명이 더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에 그 명단과 본적, 생몰연도, 당시 연령, 학년, 졸업연도 등을 정리하였다.

<표 2> 3.1운동 참여 후 체포되지 않은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19명 명단

성명	본적	생몰연도	연령	학년	졸업연도
유상규(劉相奎)	평북 강계군	1897~1936	23	3학년	1927
이의경(李儀景)	황해 해주군	1899~1950	21	3학년	중퇴
권태호(權泰鎬)	경북 영주군	1897~1964	23	2학년	1926
김영철(金永喆)	경북 영일군	1898~1987	22	2학년	1923
이동영(李東英)	평남 안주군	1895~미상	25	2학년	1922
장예세(張禮世)	함남 함흥군	1899~미상	21	2학년	1921

한위건(韓偉健)	함남 흥원군	1896~1937	24	2학년	중퇴
김상우(金相禹)	함북 성진군	1896~1926	24		1923
이도제(李道濟)	평남 평원군				1921
권두경(權斗經)	함남 함흥군			1학년	1924
김두섭(金斗燮)				1학년	중퇴
김두중(金斗鍾)	경남 함안군	1896~1988	24	1학년	중퇴
박문호(朴文浩)				1학년	중퇴
박준(朴浚)	함남 함흥군	1899~미상	21	1학년	1923
배희만(裵熙晩)				1학년	중퇴
안호삼(安鎬三)	함남 함흥군	1902~1973	18	1학년	중퇴
유경익(劉敬翼)	평남 대동군	1898~미상	21	1학년	1925
조성은(趙成殷)	함남 북청군	1897~미상	23	1학년	1925
허정묵(許丁默)	경기 경성부	1893~미상	27	1학년	1924

그 중에는 유상규, 이의경(李儀景, 이미륵), 한위건 등 해외로 나가 대한
민국임시정부 등에서 활동한 경우도 있고,⁸⁾ 후술하겠지만 김영철(金永喆),
조성은(趙成殷), 허정묵(許丁默)과 같이 국내에서 비밀 항일운동단체에 참
여하거나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을 펼친 경우가 있다. 또한 이의경, 김두
중(金斗鍾), 안호삼(安鎬三)과 같이 3.1운동 참여 이후 학교나 전공분야를
바꾼 학생들도 많았다.⁹⁾

8) 유상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홍사단에서 활동하였는데, 특히 도산 안창호의 비
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의경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잠시 활동하였고,
한위건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거쳐 일본에 건너가 사회주의자가 되었다.

9) 이의경(필명 이미륵)은 경성의전을 중퇴하고 독일에 건너가 의학박사가 되었으며,
자전적 소설 『암록강은 흐른다』를 발표하였다. 김두중은 경성의전을 중퇴하고 일
본 교토부립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훗날 한국 의사학(醫事學)의 창시자가
되었다. 안호삼은 경성의전을 중퇴하고 경성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해방
후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를 거쳐 외국어대학교의 초대 학장이 되었다.

이제 경성의전 학생 중 3.1운동에 참여하고 공식 재판을 받은 32명과 체포되지 않은 19명 등 51명을 대상으로 1920~1930년대 국내 항일운동에 참여한 인물과 그 활동 내용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지방의 시위 참여와 ‘지하신문’ 배포활동

3월 1일과 5일 서울의 대규모 시위로 허를 찔린 총독부 헌병, 경찰의 경계는 철통같이 강화되었다. 특히 날이 저문 후에 조선인이 거리에 나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했다. 자칫하면 아무런 사전경고도 받지 못한 채 경찰, 헌병, 일본인 날품팔이들의 칼에 찔리고 곤봉에 맞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¹⁰⁾ 학교들도 휴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제3차 시위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때 서울에 연연하지 않고 지방으로, 특히 고향으로 내려간 학생들이 있었다. 3.1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화학당 학생 유관순인데, 실제로 제2의 유관순, 제3의 유관순은 많았다. 경성의전 재학생 중에도 김범수, 양봉근 등 최소한 2명이 있었다.

1919년 2월 경성의전 학생 김범수는 2.8독립선언 소식을 듣고 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 전남이 고향인 그는 장성에 내려가 2.8독립선언서 750여 통을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3월 10일에는 광주로 건너가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검거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¹¹⁾

10) 『윤치호일기』 1919.3.28.

11) 김범수는 1921년 3월 출옥하여 경성의전에 복교한 후 1923년에 졸업하였다. 그 후 광주에서 ‘남선의원(南鮮醫院)’ 개원하였다. 오랫동안 광주청년회에서 간부를 맡아 광주지역의 청년운동과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총독부 관보」 大正 3186호(1923.3.28.) ; 「시대일보」 1925.7.8. 「시대일보」 1926.1.9. ; 「매일신보」 1932.9.13. ; 「조선중앙일보」 1935.6.22. ; 김희곤,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역사적 위상』, 한국의사100

양봉근은 1897년 부산 구포지역에서 출생하여 16세 때 구포 사립 화명 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경성의전 입학 후 연극공연 등 동아리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3.1운동 발발 이후 서울에서 더 이상의 만세시위가 어려워지자 고향 구포로 내려가 화명학교에서 친분을 맺은 임봉래(당시 구포면사무소 서기)를 찾아갔다. 그에게 서울의 3.1운동 소식을 상세히 전하고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후 구포에서 만세시위를 일으킬 것을 당부하였다. 양봉근이 서울로 피신한 후 임봉래 등은 3월 29일 구포 장날에 만세시위를 벌였다. 양봉근은 구포지역 만세시위의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¹²⁾

김범수와 양봉근의 이와 같은 활약은 다른 학생들의 움직임과 함께 3.1운동을 전국적인 독립운동, 거족적인 독립운동으로 폭발시킨 동력이 되었다.¹³⁾

또한 서울의 학생들은 '지하신문'을 제작,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지하신문을 통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일제의 식민통치의 실상과 본질, 국내에서 수집한 기밀, 해외 독립운동 소식 등을 알렸다. 그 중 「반도(半島)의 목탁(木鐸)」은 장용하(張龍河) 등 배재고보 학생 3명과 보성고보 학생 공흥문(孔興文), 중앙학교 학생 서정기(徐廷基)등이 만든 신문이었다. 그들은 조선의 참상, 조선의 독립 고취 등의 내용을 담아 100~3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그런데 「반도의 목탁」 배포 과정에는 다른 학교 학생

주년기념재단, 2007, 69쪽.

- 12) 신영전·윤효정, 「보건운동가로서 춘곡 양봉근의 생애」.
- 13) 경성의전 졸업생 중에도 지방의 3.1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있었다. 박성행(朴聲行)은 황해도 해주의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징역 6년을, 이민호(李敏浩)는 황해도 사리원과 그 인근 지역의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징역 3년을, 강기팔(姜基汎)은 평남 강서군 함중면의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고등법원 1919년 刑上 제279호) ;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2권 삼일운동사(상)』, 1971, 407~409쪽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 김희곤,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역사적 위상』.

들도 참여하였다. 중등학교 학생 최하현(崔夏鉉)으로부터 이 신문들을 건네받은 허정묵, 김상우(金相禹), 최종덕(崔惠鍾) 등은 안국동, 운니동 등지에서 배포활동을 벌였다.¹⁴⁾

그들에 대한 판결문의 내용을 통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919년 3월 1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을 선언한 이래 그 기운을 양성시키기 위해 조선 각 지방에서 시위운동이 빈발하던 그때 피고 등은 동년 3월 2일부터 동년 4월 상순까지의 기간 동안에 당시 피고 등이 머물고 있던 경성부 안국동 52번지 최한석 집에서 경성부 중등학교 생도 최하현으로부터 '반도의 목탁'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이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받고 이를 배부하여 다수의 독자를 선동하여 조선독립운동에 가담시킬 것을 계획하여 위를 수령할 당시 피고 許丁黠은 22매를, 피고 金相禹는 15매를, 피고 崔惠鍾은 30매를 경성부 내에서 다수의 조선인에게 배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¹⁵⁾

그런데 허정묵과 김상우는 경성의전 학생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모두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¹⁶⁾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허정묵과 김상우가 같은 함경도 출신에 하숙

14) 박찬승,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33권 - 언론운동 -』,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2009.

15)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1919.7.17.)

16) 허정묵은 1924년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함북 온성군 온성면에서 개원하였다. 1936년 세상을 떠났다. 「조선총독부 관보」 大正 3522호(1924.5.13.) ; 「시대일보」 1926.6.6. 김상우는 1923년 경성의전을 졸업하였고, 1926년 세상을 떠났다. 「조선총독부 관보」 大正 4168호(1926.7.12.).

집이 같았다는 사실이다.¹⁷⁾ 즉 당시의 하숙 문화가 이들의 독립운동에 작용한 것이다. 당시 서울의 '북촌'이나 각 학교 인근에 하숙집이 많았는데, 전문 하숙집보다는 지식인층이 운영하는 하숙집이 더 많았다. 서울에 일찍 올라와 자리를 잡은 지식인이 고향 후학들을 하숙생으로 들이는 경우가 많다. 전문학교 교수가 하숙집 주인인 경우도 있었다. 서울에 함경도와 평안도 '전문' 하숙집은 상당히 많았다. 같은 전문학교의 선후배뿐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학교 학생들이 하숙 생활을 통해 동지가 되었다. 3.1운동 과정에서도 같은 하숙집 학생들은 정세를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의기투합해서 시위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⁸⁾

III. 3.1운동 직후 독립운동단체 참여와 의열투쟁 지원

1. 독립운동단체 참여와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

1919년 5월 말부터 3.1운동은 잦아들었지만, 3.1운동이 가져온 충격은 대단했다. 일제는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총독을 경질하고, 조선 통치방식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3.1운동 덕분에 국내외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하이에 집결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계된 항일 비밀단체들이 결성되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조선민족대동단이었다.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하 '청년외교단')은 1919년 6월 조용주(趙鏞周),

17) 허정목, 김상우, 최덕종은 모두 경성부 안국동 78번지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18) 자세한 내용은 김상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3.1운동 참여 양상」 참조.

연병호(延秉昊), 송세호(宋世浩), 안재홍(安在鴻) 등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한 비밀단체였다. 이 단체의 목적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국내 상황을 알리고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여 전달하는 것, 각종 인쇄물을 제작하고 반포하여 독립의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 단체는 경상도 등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통부(聯通府)의 업무를 대신하였고, 다른 독립운동단체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하였다.

그런데 경성의전 학생으로서 3.1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이의경(李義敬)이 청년외교단에서 활약하였다. 이의경은 1919년 경성의전 3학년 재학 중 3.1운동에 참여하였고, 다행히 체포되지 않았다. 그는 청년외교단에 가입하여 편집부장을 맡아 청년외교단의 기관지인 『외교시보(外交時報)』를 발간하였다. 그는 조용주가 기초한 ‘국치기념경고문’을 인쇄하여 서울과 지방에 배포하기도 했다. 그는 자전적 소설 『암록강은 흐른다』에서 청년외교단 시절에 대해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은 네 번째 시위를 벌인 뒤 지하로 잠복하여 시위운동을 위한 비밀활동에 들어갔다. 나는 선전물을 만드는 부서에 배치되었다.”라고 서술하였다.¹⁹⁾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이하 ‘대동단’)은 1919년 3월 전협(全協), 최익환(崔益煥) 등이 서울에서 조직한 비밀 독립운동단체였다. 귀족, 유림, 종교계 인사, 상공업자, 학생 등 전 계층이 참가하였다. 주요 활동은 독립운동자금 모금, 선전문 및 포고문 배포, 「대동신문」의 간행 등이었다.²⁰⁾ 특히 1919년 11월 고종황제의 아들인 의친왕 이강공(李綱公)을 국외

19) Mirok Li · 이옥용 역, 『암록강은 흐른다』, 보물창고, 2011, 197쪽. 이의경(이미록)은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이듬해에 독일로 망명하였다. 1928년 독일 뮌헨대학 이학박사(생물학, 철학)가 되었다. 1946년 독일에서 자전적 소설 『암록강은 흐른다』를 발표하였고, 1947~1949년 뮌헨대학 동양학부에서 한국문학을 강의하였다. 1950년 세상을 떠났다.

20) 대동단의 3대 강령에 대해서는 「崔益煥 조서」(1920.2.2. 경성지방법원 예심판사 신문조서) 참조.

로 탈출시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도자로 추대함으로써 외교적 효과를 얻으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때 의친왕의 망명을 주도하였던 대동단 단원 중에 경성의전 학생 나창헌이 있었는데, 그는 청년외교단의 단원이기도 했다.

나창헌은 1919년 경성의전 2학년 재학 중 학생대표로 3.1운동을 준비하고 서울의 1차 시위에 적극 참여하였다. 체포되어 사법처리의 수순을 밟던 중 1919년 5월 병보석으로 나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였다. 1919년 7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탈출하여 전협을 만나 대동단에 가입하였다. 1919년 8월 청년외교단 특별단원 자격으로 이종욱과 함께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과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1919년 10월 초순 청년외교단의 송세호, 이종욱 등과 독립선언과 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고, 마침내 11월 28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1919년 11월 이강공 상하이 망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²¹⁾

경성의전 학생 김영철도 대동단 단원으로 활약하였다. 그는 1919년 경성의전 2학년 때 한위건의 권유를 받고 서울의 1차, 2차 시위에 참가하였는데,²²⁾ 체포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모색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대한독립애국단에 가입하였다. 이어서 「반도의 목탁」 배포활동의 주인공이었던 허정묵으로부터 대동단의 지도자인 최익환을 소개받았다. 5월 19일 김영철은 최익환으로부터 대동단이 독립운동단체라는 사실을 들었으며, 대동단의 「선언서」와 「일본 국민에게 고향」이라

21) 나창헌은 1920년대에 상하이에서 철혈단(鐵血團), 한국노병회(韓國勞兵會), 병인 의용대(丙寅義勇隊) 등의 단체에 참여하여 상해 일본 총영사관을 폭파하는 등 강력한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22) 신문조서에 따르면, 김영철은 3월 1일 파고다공원-남대문-서대문에서 균종과 함께 만세시위를 벌였다. 3월 5일에는 남대문에 갔으나 시위가 이미 끝나 있었다. 두 차례 모두 동급생 한위건의 권유를 받고 참여하였다. 「金永喆 조서」(1919.6.25.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신문조서)

는 제목의 인쇄물을 배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²³⁾ 5월 20일 그는 3.1운동에 참여한 바 있는 동급생 이도제(李道濟)에게 대동단 인쇄물의 배포를 부탁하고 승낙 받았다. 그러나 여건이 좋지 않아서 최익환은 김영철과 이도제에게 인쇄물을 전달하지 못했다.²⁴⁾ 김영철은 대동단 활동과 관련하여 체포된 후 검사의 신문을 받았는데, 자신은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향후 기회가 있으면 독립운동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답했다.²⁵⁾ 그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실제로 1년 6월 옥고)을 선고받았다.

한편 3.1운동 직후에는 독립운동단체들이 또는 애국지사나 학생이 개별적으로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을 벌였다. 그 가운데 경성의전 학생 조성은이 있었다. 그는 1912~1917년 보통학교 훈도(訓導)를 지낸 후, 1918년 경성의전에 입학하였다.²⁶⁾ 1919년 경성의전 1학년 재학 중 3.1운동에 참여하였다. 3월 1일 서울의 1차 시위 때 종로, 남대문, 서대문 일원에서 만세시위에 적극 참여하였다.²⁷⁾ 3월 5일에는 고향과 하숙집이 같고, 전직이 교사였던 것도 같은 동급생 전진극과 함께 2차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체포되지 않았다.²⁸⁾

그 후 조성은은 경성부 서대문 미결감에 구금되어 있던 이덕화(李德和), 오예택(吳禮澤)과 의논하여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기로 결심하였다. 1919년 9월 20일경 조성은은 이덕화와 함께 강원도 통천군 유응준(劉應

23) 「崔益煥 조서」(1920.2.2. 경성지방법원 예심판사 신문조서), 최익환은 경무총감부에서 신문을 받던 중 대동단의 「방략·기관(方略·機關)」을 김영철, 허정묵 등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崔益煥 조서」(1919.5.25. 경무총감부 순사 신문조서)

24) 「金永喆 조서」(1919.5.23. 경무총감부 순사 신문조서)

25) 「金永喆 조서」(1919.6.25.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신문조서)

26) 「조선총독부 관보」 大正 1731호(1918.5.16.)

27)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1919.12.2.

28) 「全鎮極 조서」(1919.3.9. 종로경찰서 순사 신문조서) ; 「全鎮極 조서」(1919.4.30. 경성지방법원 예심판사 신문조서)

俊)의 집을 방문하여 독립운동자금 제공을 요청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되었다. 결국 조성은은 3.1운동 만세시위 참가와 관련하여 보안법 위반, 독립운동자금 모금과 관련하여 사기죄를 적용 받아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²⁹⁾

2. 의열투쟁 지원

3.1운동 직후 국내외에서 의열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강우규 의거였다. 강우규는 3.1운동 소식을 듣고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노인단(新韓村老人團)의 길림성 지부장이 되어 독립운동을 모색하던 중 총독 암살을 결심하고, 최자남(崔子南), 허형(許炯) 등과 거사계획을 세운 후 서울에 잠입하였다. 1919년 9월 2일 사이토(齋藤實) 총독이 부임차 남대문역에 도착하자마자 수류탄을 던졌는데 아쉽게도 실패하였다.³⁰⁾

그런데 강우규 의거의 조력자 가운데 경성의전 학생 오태영(吳泰泳)이 있었다. 오태영의 신문조서를 통해 그의 활동 내용을 정리해보자.

오태영은 3월 1일 서울의 1차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고, 재판 도중 보석되어 고향인 함경도 정평에서 생활하였다. 1919년 8월 30일 상경하여 의거 발생 후인 9월 5일에 강우규를 첫 대면하였다. 강우규로부터 ‘노령 군정부’의 지시를 수행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안전한 여관을 물색해

29) 조성은은 1925년 3월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4월에 의사면허를 받았다. 그러나 9월에 의사면허를 반납하였는데 그 이유는 확인할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 관보』 大正 3789호(1925.4.6.) ; 『조선총독부 관보』 大正 3819호(1925.5.12.) ; 『조선총독부 관보』 大正 3913호(1925.9.1.)

30) 자세한 내용은 「매일신보」 1920.2.26. ; 『기려수필(騎驢隨筆)』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976 ; 김후경,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 광복출판사, 1983 ; 국가보훈처,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 1997 참조.

주었다. 다시 양정학교 3학년 장지상(張之相)의 도움을 받아 9월 7~11일 그의 숙부인 장익규(張翊奎)의 집에 강우규를 은신시켰다. 또한 9월 7일 강우규로부터 허형을 찾아가 군정부의 명령서를 수령해오라는 부탁을 받고 이행하였다. 9월 9일 다시 강우규의 부탁을 받아 군정부의 명령서를 지참하고 경북 경주에 거주하는 최익선(崔益善)을 찾아가 군자금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9월 17일 강우규 등 관계자 9명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은 경성의전 학생 오태영이 강우규를 비호한 혐의로 검사국에 압송되었다고 보도하였다.³¹⁾ 오태영은 신문 때 “3월 1일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보석된 몸으로 군정부의 명령서를 가지고 경주까지 돌아다닌 것이 옳은 줄 아나?”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 “법률에 저촉되는 줄은 알았지만, 독립을 희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³²⁾

1920년 1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강우규 의거에 대한 예심이 종결되었다. 이때 장익규 등 5명은 면소되었다. 그러나 오태영은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사람이 강우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강우규를 여러 곳에 은신시켰다는 이유로 공식 재판에 회부하였다.³³⁾ 마침내 1920년 2월 25일 선고공판이 열렸다. 강우규는 사형을, 최자남은 징역 3년을, 허형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때 오태영은 무죄를 선고받았다.³⁴⁾

그런데 해방 후 반민특위는 조사를 통해 최자남, 허형은 물론 오태영

31) 「독립신문」 1919.10.14.

32) 「매일신보」 1920.2.20. ; 「大正 8년 10월 6일 高警 제28453호」, 『독립운동사자료집 11: 의열투쟁사자료집』, 1971, 79~84쪽.

33) 「매일신보」 1920.1.30.

34) 「매일신보」 1920.2.26. ; 「매일신보」 1920.2.27.

도 독립운동가 또는 혁명의사단(革命義士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³⁵⁾ 또한 「경향신문」이 창간 30주년을 기념하여 반민특위에 대해 특별한 연재한 기사에서도 오태영은 독립투사라는 평가를 받았다.³⁶⁾

한편 강우규 의거의 중심인물이었던 허형은 도산 안창호가 설립한 대성학교(大成學校) 출신으로 3.1운동 이후 다방면으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한민방(韓敏邦), 함병승(咸秉昇) 등과 함께 조선독립청년단(朝鮮獨立靑年團)이라는 비밀결사에 가담하여 주로 학생층을 대상으로 비밀활동을 벌였다.

그런데 함병승은 경성의전 학생으로서 3.1운동에 참여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함병승은 1919년 당시 서울 남대문교회 전도사로 재직하면서 3.1운동을 주도한 함태영(咸台永)의 아들이었다. 그는 경성의전 2학년에 재학 중 동급생 한위건, 나창헌 등에게 3.1운동 계획 소식을 듣고 서울의 1차 시위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는 예심판사의 신문 때 “조선이 독자적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독립을 희망하였고”, “앞으로도 기회만 있으면 독립운동에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항일정신이 투철하였다.³⁷⁾

1920년대 초반 국내외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올린 의열투쟁단체는 의열단(義烈團)이었다. 의열단은 1919년 11월 만주에서 김원봉 등이 결성한 단체였다. 사상적으로는 급진적 민족주의 경향을 띠고 있었고, 독립운동 방법으로는 과격한 폭력투쟁을 지향하였다. 김익상의 총독부 청사(왜성대) 폭탄 투척 의거,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 나석주의 동양척식회사 및 식산은행 폭탄 투척 의거 등 성과가 대단했다.

35) 「반민특위조사기록(1949.7.)」 ‘오승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자료’

36) 「경향신문」 1977.8.18. ‘反民特委 [49] 독립투사의 證言’

37) 「咸秉昇 조서」(1919.4.28. 경성지방법원 예심판사 신문조서). 함병승은 1922년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함경남도 문천군에서 공의로 근무하였으나 1929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1923년 의열단의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을 지원한 허영조(許永祚)는 경성의전 졸업생이었다. 허영조는 1897년 부산에서 출생하였고, 경성의전 4학년 때 3.1운동에 참여하였다. 1920년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곧바로 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 1922년 고향인 부산에서 개인병원을 개원하였다.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단체인 부산청년회에서 위생부 간사를 맡아 지역사회의 청년운동에 참여하였다.³⁸⁾ 그런데 1923년 의열단 단원 강홍렬(姜洪烈)이 허영조를 찾아와 의열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허영조는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었다.³⁹⁾

IV. 1920년대 항일 학생운동 주도과 신간회 참여

1. 1920년대 초반 항일 학생운동 주도

3.1운동은 전 계층이 참여한 거족적인 민족운동이었지만, 3.1운동을 준비하고 초창기의 운동을 선도한 계층은 학생층이었다. 특히 학생층은 전문학교, 중등학교 학생대표들을 중심으로 각 학교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였다. 그와 같은 경험과 자부심이 동력이 되어 1920년 5월 학생단체인 '조선학생대회'가 창립되었다. 조선학생대회는 출범 이후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계의 건실한 기풍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단일 대오의 학생 대중조직 결성을 지향하였다.⁴⁰⁾ 조선학생대회는 1921년 4월

38) 「동아일보」 1922.4.29.

39) 「京鍾警高秘」 제16789호의 4. 허영조는 1929년 세상을 떠났다.

40) 자세한 내용은 장규식,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39권 - 1920년대 학생운동 -』,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2009 참조.

16일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⁴¹⁾ 각 부서의 보고를 받은 후 임원을 개선했다. <표 3>에 제1기 간부진과 제2기 간부진 명단을 정리하였다.

<표 3> 조선학생대회의 간부진

직책	창립총회(1920.5.9.) 당시 간부		제2회 정기총회(1921.4.16.) 당시 간부	
회장	김윤경(金允經)	연희전문	전일(全一)	조선약학교
부회장	김찬두(金贊斗)	세브란스의전	이필근(李弼根)	경성의전
총무	김경순(金慶順)	정신여학교	송봉우(宋奉瑀)	중앙고보
	신경수(辛景壽)	보성고보	조봉원(趙鳳元)	이화여고보
의사부장	최정묵(崔鼎默)	경성전수학교	염태진(廉台振)	연희전문
덕육부장	이의정(李義正)	경성여고보	장세구(張世九)	경성의전
지육부장	정성봉(鄭聖鳳)	연희전문	이원식(李元植)	경성공전
체육부장	박희준(朴熙俊)	경성의전	장석태(張錫泰)	경성공전
경리부장	김영숙(金永淑)	정신여학교	김종문(金鍾文)	조선약학교
사교부장	권철(權鐵)	중앙고보	이강(李樞)	경성의전

우선 제1기 간부진의 구성을 보면, 10명의 임원 중 회장 김윤경을 필두로 7명이 사립 전문학교 및 중등학교 소속이었다. 관립학교인 경성의전 학생은 박희준이 유일했다.⁴²⁾ 그런데 제2기 간부진을 살펴보면, 관립 전문학교 학생이 5명으로 늘었다. 특히 경성의전 학생이 3명이나 포함되었다. 부회장에 이필근(李弼根),⁴³⁾ 덕육부장에 장세구, 사교부장에 이강이 선임된 것이다. 특히 장세구와 이강은 3.1운동에 적극 참여한 학생들이었다.

41) 「동아일보」 1921.4.18. ; 「매일신보」 1921.4.19.

42) 박희준은 1919년 경성의전에 입학하여 1923년에 졸업하였다. 1923년 교남학회 상무위원, 1928년 경북 선산군 공의, 1936년 재단법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발기준비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43) 이필근은 1918년 경성의전에 입학하여 1922년 졸업하였다. 1923년경부터 만주에서 개인병원을 개원하고 조선인 동포들을 진료하였다. 「매일신보」 1924.2.22.

조선학생대회의 여러 활동 중에서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전국을 돌며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벌인 하기순회강연회는 조선학생대회의 가장 큰 행사이자 대표적인 사업이었다. 지방 학생들과 민중의 호응도 대단했다. 그들은 강연회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사상에 눈을 떴고, 민족적 각성을 할 수 있었다. 순회강연에 참여한 학생들 또한 민중의 호응에 고무되어 학생들의 사회적 책무를 더욱 막중히 느끼게 되었다. 이때 3.1운동 참여 경력이 있는 경성의전 학생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장세구는 경성의전 2학년 재학 중 서울의 1차, 2차 시위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이후에도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1921년 조선학생대회 덕육부장에 선임되었고, 지방 순회강연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21년 7월 25일 경북 예안에서 청중 1,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인생과 사회’라는 연제로 연설하였고,⁴⁴⁾ 8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파괴는 건설이라’라는 연제로 연설하였다.⁴⁵⁾ 8월 14일에는 경북 봉화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하여 ‘교육의 가치’라는 연제로 열변을 토하였다.⁴⁶⁾

이강은 경성의전 2학년 재학 중 서울의 만세시위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예심판사의 신문 때 3.1운동 참여 동기 및 독립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민족차별과 정치적 자유의 억압뿐만 아니라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경제적 횡포와 수탈 등을 언급하여 주목을 받았다.⁴⁷⁾ 1921년 조선학생대회의 사교부장에 선임되었고, 지방 순회강연에도 적극 참여하였다.⁴⁸⁾

이동영(李東英)은 경성의전 2학년 재학 중 서울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으며, 체포되지 않았다. 임원은 아니었지만, 조선학생대회의 핵심인물

44) 「동아일보」 1921.8.2.

45) 「동아일보」 1921.8.6.

46) 「매일신보」 1921.8.14.

47) 자세한 내용은 김상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3.1운동 참여 양상」 참조.

48) 「매일신보」 1921.7.10.

중 한 사람이었다. 1921년 하기순회강연단을 구성할 때 북선 1단(北鮮 1團)의 단장을 맡아 강원도 평강, 함경도 함흥, 북청, 영흥, 고원, 흥원, 단천 등을 순회하면서 강연회를 주도하였다. 특히 강연단 단장으로서 청중에게 조선학생대회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연사로도 활약하였는데, 그의 강연제목은 ‘목하(目下) 조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물’, ‘시세(時勢)를 각성하라’, ‘우리의 처지와 각성의 필요’ 등이었다.⁴⁹⁾

양봉근은 경성의전 재학 중 고향인 부산 구포의 시위에 기여한 바 있는데, 조선학생대회의 순회강연단에도 연사로 참가하였다. 당시 그의 강연제목은 ‘지방적(地方的) 노력’, ‘조선인의 조로성(早老性)’, ‘우리의 죄악(罪惡)’ 등이었다.⁵⁰⁾

허정묵은 경성의전 재학 중 3.1운동 과정에서 「반도의 목탁」 배포활동을 하였는데, 조선학생대회의 지방순회강연에도 참여하여 경상도 지역에서 연사로 활동하였다.⁵¹⁾

요약하면 1921년 조선학생대회 제2기 지도부에서 이필근, 장세구, 이강 등 경성의전 학생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장세구와 이강은 3.1운동에 적극 참여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경성의전 학생들은 조선학생대회의 하기 지방순회강연회에서도 크게 활약하였는데, 장세구, 이강, 이동영, 양봉근, 허정묵 등 5명은 3.1운동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이었다. 특히 그들의 강연은 보건위생보다는 사회와 교육, 신사상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

49) 「동아일보」 1921.7.10. ; 「동아일보」 1921.8.2. ; 「매일신보」 1921.8.4. ; 「동아일보」 1921.8.8. ; 「동아일보」 1921.8.10. ; 「동아일보」 1921.8.14. ; 「동아일보」 1921.8.15. ; 「동아일보」 1921.8.19. ; 「동아일보」 1921.8.23. 이동영은 1922년 경성의전을 졸업한 후, 1923~1929년 경상북도 도립김천의원의 의원(醫員)으로 근무하였다. 그 후 평양에서 개원하였고, 1935년 평양 ‘기성의사회(箕城醫師會)’의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조선총독부 관보」 大正 2886호(1922.3.30.) ; 「동아일보」 1935.12.27.

50) 자세한 내용은 신영전·윤효정, 「보건운동가로서 춘곡 양봉근의 생애」 참조.

51) 「매일신보」 1921.7.10.

어 식민지 현실의 전반을 다루고 있었으며, 우리 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1921년 경성의전 학내에서도 항일 학생운동이 일어났다. 3.1운동으로 인한 조선인 학생들의 투옥과 퇴학으로 한동안 어수선했던 경성의전 캠퍼스는 1921년 5월 말 한 일본인 교수의 ‘망언’ 때문에 또다시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5월 26일 해부학 교수 구보(久保武)가 해부학 실습실의 두개골 하나가 없어진 것을 두고 조선인 학생의 소행이라면서, 조선 사람은 원래 해부학상으로 야만인에 가깝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이다. 이에 평소 해부학 수업 때도 민족적 굴욕감을 감수해왔던 194명의 조선인 학생 전원이 6월 4일 구보 교수의 수업을 거부하고, 응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동맹휴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측은 ‘주동자’ 9명을 퇴학시키고, 나머지 185명을 무기정학 처분하는 강경책으로 맞섰다. 그러자 조선인 학생 전원은 다시 자퇴를 신청하며 맞섰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를 타고 곧바로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경의전 졸업생들로 구성된 교우회(校友會)와 학부형들이 중재에 나섰다. 사이토(齋藤實) 총독마저도 조선인 전체가 동요할 것을 우려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사건 발생 약 한 달만인 6월 28일 학교당국이 학생 징계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수습의 가닥이 잡혔다. 구보 교수는 결국 이듬해에 학교를 떠났다.⁵²⁾

그런데 이때 학교 당국이 학생맹휴의 주도자로 판단하여 한때 퇴학시켰던 학생 9명 중에는 4학년 양봉근, 이필근, 3학년 장세구, 전진국이 포함되어 있었다.⁵³⁾ 또한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퇴학은 당하지 않았지만

52)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사진과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 의료 문화사』, 웅진지식하우스, 2009, 89쪽.

53) 「동아일보」 1921.6.8.

주도 학생 중에 이동영이 포함되어 있었다.⁵⁴⁾ 이 5명 학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선 양봉근, 장세구, 전진극, 이동영 등 4명은 3.1운동 참여 경력의 소유자였다. 다음으로 이필근, 장세구, 이동영, 양봉근 등 4명은 조선학생대회의 핵심인물이었다. 이필근, 장세구는 조선학생대회의 간부이자 하기 순회강연회의 연사였고, 이동영은 하기순회강연회의 단장이었으며, 양봉근은 하기 순회강연회의 연사였다. 결국 학생운동이 3.1운동에서 조선학생대회 활동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민족문제에 대한 고민과 판단이 심화되고, 졸업 후 의사 신분으로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1920년대 후반 신간회 참여

1920년대 후반에 활동한 국내의 민족운동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대중운동단체는 신간회(新幹會)였다. 신간회는 동아일보계열, 천도교 신파로 대표되는 자치운동세력에 맞선 민족연합전선이었다. 즉 조선일보계열, 천도교 구파, 개신교 지식인 등 민족주의세력과 일본 유학생 출신 중심의 사회주의세력, 특히 제3차 조선공산당의 핵심인물들이 참여한 합법적 대중단체였다. 1927년 2월 창립 후 1931년 5월 해산때까지 지회 설립이 활발하였고, 광주항일학생운동과 농민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벌여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한마디로 1920년대 후반의 최대 민족운동단체였다.⁵⁵⁾

그런데 경성의전 재학 중 3.1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졸업생, 중퇴생 중에 신간회의 본부, 지회의 간부로 활약한 인물들이 있었다.

54) 「동아일보」 1921.6.10.

55) 신간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및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참조.

한위건은 3.1운동 당시 경성의전의 학생대표로서 서울의 1차, 2차 시위를 주도한 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내무부위원, 임시의정원 함경도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 일본에 건너가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한 후 공산주의연구회에 참여하면서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유학생학우회 위원, 도쿄 조선기독교청년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제일 유학생계의 핵심인물이 되었다. 1924년 귀국하여 「시대일보」 이사를 거쳐 1925년 3월부터 약 3년 동안 「동아일보」 기자와 정치부장을 역임하였다. 이미 사회주의계열의 핵심인사가 되어 있었던 그는 1926년 9월경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였다. 1926년 11월 사회주의계열과 민족주의계열의 합작을 표방한 '정우회선언'에 참여하였다. 12월 6일 조선공산당 제2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에 선출되었고, 선전부 부원을 맡았다.

한위건은 1927년 1월 신간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창립준비위원으로 선임되었고, 2월 신간회 간사회에서 간사로 선임되었다. 1927년 9월 조선공산당 선전부장에 선임되었고, 1928년 2월 27일 조선공산당 3차당대회에 준비위원 대표로 참석하여 검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⁵⁶⁾ 그러나 1927년 가을 경찰의 검거를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였다.⁵⁷⁾ 요약하면 일본

56) 경성의전 1919년 졸업생 중에 안효구(安孝駒)가 있었다. 그가 사회주의자로 활동할 당시의 필명은 안광천(安光泉)이다. 그는 1925년 일본에서 사회주의단체 '일월회(日月會)'를 결성하였고, 이듬해 제3차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였다. 1926년 11월 '정우회선언'을 발표하고 민족협동전선의 결성을 촉구하였다. 마침내 1926년 12월 제3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가 되었고, 신간회 창립에도 기여하였다. 한위건은 경성의전 입학 기준으로 안광천의 2년 후배이며, 제3차 조선공산당에서 함께 활동하였다.

57) 한위건은 1927년 가을 상하이로 망명하여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투신하였다. 1931년 중국공산당 베이징시위원회에 가입하였고, 1933년 톈진에서 중국공산당 하북성위원회 선전부장을 맡았다. 1936년 하북성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었으나, 이듬해에 폐결핵과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다. 자세한 내용은 김승태, 「경성의학

유학 중 사회주의자가 된 한위건은 제3차 조선공산당의 핵심인물이 된 후 신간회 창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탁원은 신간회 경성지회의 간부로 활약하였다. 그는 경성의전 4학년 재학 중 학생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921년 경성의전을 졸업한 후 병리학을 연구하고자 동경제대 의학부에서 2년 동안 연구하였고, 귀국 후 서울 서대문 인근에 정신과 개인병원을 개원하였다.⁵⁸⁾ 혼수상태에 빠져 가출옥 된 '대동단' 단장 전협(全協)을, 감옥에서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진 사회주의자 박헌영(朴憲永) 등을 치료한 적도 있었다.⁵⁹⁾

김탁원은 1929년 7월 21일 신간회 경성지회 임시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⁶⁰⁾ 이틀 후 신간회 경성지회 제1회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간부진 조직 과정에서 회계로 선출되었다.⁶¹⁾ 1930년경에는 신간회 경성지회의 감사위원장을 담당하였다.⁶²⁾

최경하는 신간회 목포지회의 중심인물로 활약하였다. 그는 1919년 경성의전 4학년 때 경성의전 학생대표로 활약하는 한편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921년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923년 전남 목포에서 개인병원을 개원하였다.⁶³⁾

최경하는 의료인을 뛰어넘어 목포 지역사회의 중심인물로 부상하였고, 1927년 6월 18일 신간회 목포지회 창립 때 부회장에 선출되었다.⁶⁴⁾

전문학교 학생들의 3.1운동 참여 양상」 참조.

58) 「동아일보」 1926.10.2.

59) 「동아일보」 1927.7.11. ; 「동아일보」 1927.11.24.

60) 「동아일보」 1929.7.23.

61) 「동아일보」 1929.7.26.

62) 「동아일보」 1931.1.17.

63) 「조선총독부 관보」 1921.9.8. ; 「매일신보」 1927.5.3.

64) 「동아일보」 1927.6.23.

1927년 7월 22일 신간회 목포지회 '선전연설대회'에서 '역학상(力學上)으로 본 우리 회(會)'라는 연제로 신간회와 목포지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였다.⁶⁵⁾ 1927년 12월 4일 신간회 목포지회 정기대회에서 분회 설치, 기관지 발행, 투쟁 방침 및 정책 등에 관해 토의하였다.⁶⁶⁾ 1927년 12월 31일 신간회 목포지회 부회장에 재선되었다.⁶⁷⁾

황해도 재령 출신의 정인철은 1919년 경성의전 1학년 재학 중 3.1운동에 참여하였다. 1920년 재령학우회 회장과 재령유학생학우회 부회장을 지내며 재령 학생계와 재령 출신 서울 유학생계에서 중심인물이 되었다. 1925~1927년은 그의 활동의 전성기였다. 1925년 재령무산청년회 창립총회 때 임시의장을 맡았고, 1926년에는 재령청년연맹 상무집행위원, 재령무산청년회 대표, 재령청년회 상무위원, 재령군청년연맹 창립준비회 집행위원을 역임하였다. 1927년에도 해서청년연합회(海西靑年聯合會) 집행위원과 재령청년동맹 위원장이 되었다.⁶⁸⁾ 이 무렵 그는 재령의 청년운동, 사회주의운동의 주도자였다. 결국 그는 1928년 제3차 조선공산당사건으로 40여 일 동안 구속된 적도 있었다.⁶⁹⁾ 아울러 1929년 신간회 재령지회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⁷⁰⁾

함남 북청 출신의 이강은 1919년 경성의전 2학년 재학 중 3.1운동에 참

65) 「중외일보」 1927.7.22.

66) 「동아일보」 1927.12.8.

67) 「동아일보」 1927.12.31. 최경하는 1932년 이전에 목포에서 전주로 이주하여 전주 예수병원 의사로 근무하다가 1934년 전북 전주에서 '중앙의원'을 개원하였다. 「매일신보」 1934.12.2.

68) 「동아일보」 1920.8.25. ; 「동아일보」 1920.9.8. ; 「동아일보」 1925.1.9. ; 「동아일보」 1926.3.5. ; 「시대일보」 1926.3.12. ; 「동아일보」 1926.5.26. ; 「시대일보」 1926.5.27. ; 「시대일보」 1926.6.22. ; 「동아일보」 1926.12.6. ; 「중외일보」 1927.3.20. ; 「동아일보」 1927.9.15. ; 「동아일보」 1928.1.13.

69) 「중외일보」 1928.10.8.

70) 박경식 編, 『조선문제자료총서 (6)』, 아시아문제연구소, 1982.

여하였고, 1921년 조선학생대회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1923년 경성의전을 졸업한 후 1925년 9월 고향인 함남 북청에서 개인병원을 개원하였다.⁷¹⁾

이강은 북청에서 단순한 의료인이 아니었다. 그는 1926년 3월 북청노동연합회 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⁷²⁾ 1926년 12월 북청군의 사상단체 '일칠회(一七會)'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을 때 연자로 참여하였다.⁷³⁾ 1927년 7월 북청농업학교에서 학생 동맹휴업 사건이 발생하자 교섭위원이 되었다.⁷⁴⁾ 1928년 1월 15~16일 신간회 북청지회 제2회 정기총회가 열렸을 때 그는 신간회 북청지회의 부지회장격인 재무부 총무간사에 선임되었다.⁷⁵⁾

경남 부산 구포 출신의 양봉근은 1920년대 중반 울산에서 개인병원을 개원하고 울산지역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진보적인 농민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1927년 신간회가 출범하자, 양봉근은 울산지역의 활동가들을 규합하여 1928년 3월 17일 울산지회 설립에 성공하였고, 울산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만 2년 동안 울산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울산지역 교육문제의 해결, 청년운동과 여성운동의 촉성 등에 기여하였다.

1930년 서울로 올라온 양봉근은 11월에 개최된 신간회 본부 중앙집행 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그런데 당시 신간회는 위기 국면에 놓여 있었다.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폭발하는 가운데 사회주의세력의 주류가 좌경화하면서 신간회 해체를 주장한 것이다. 양봉근은 민족연합전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간회 해체

71) 『咸鏡南道 事業と人物名鑑』, 1927, 153쪽.

72) 「매일신보」 1926.3.17.

73) 「동아일보」 1926.12.3.

74) 「중외일보」 1927.7.27.

75) 「매일신보」 1928.1.24. 이때 신간회 북청지회장에 선임된 주익(朱翼)은 3.1운동 당시 보성법률상업학교의 졸업생 대표로 활약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김상태, 앞의 논문, 참조.

반대의 입장에서 해소를 막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1931년 5월 16일 신간회는 끝내 해체되고 말았다.⁷⁶⁾

V. 1930년대 초반 만주동포 지원활동과 보건운동 주도

1. 만주동포 지원활동

1931년 5월 신간회가 해체된 이후 곧바로 큰 현안이 대두되었다. 1931년 7월 만주의 만보산 지역에서 관개수로 문제로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9월에는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침략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만주지역 조선인 재난동포들의 피난과 안전, 건강 등이 큰 현안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31년 10월 조선의 유력 단체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만주조난동포문제협의회를 창립하였다. 이때 경성의전을 졸업한 의사인 김탁원이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경성의전 재학 중 3.1운동에 적극 참여한 바 있는 김탁원은 1920년대 후반부터 한국 의료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부상하였다. 1928년 경성여자의 학강습소를 설립하여 한국 여성 의학교육의 선구자가 되었다.⁷⁷⁾ 1927년 ‘영흥 에메틴 중독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진상조사위원회 선정되어 현장을 조사한 후 총독부의 공식 견해인 감기나 폐렴이 아니라 중독에 의한 사고임을 강조하였다.⁷⁸⁾ 1930년 2월 22일 조선인 의사들이 조선의학계의 발

76) 자세한 내용은 신영전·윤효정, 「보건운동가로서 춘곡 양봉근의 생애」 참조.

77) 「동아일보」 1933.7.8. ; 「동아일보」 1933.8.9. ;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사진과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 의료 문화사』, 169~170쪽.

78) 「동아일보」 1927.3.27. ; 「동아일보」 1927.3.30. ;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달, 민중 위생사상의 향상 및 보급, 의사들의 지식교환 및 상호친목을 목표로 조선의사협회를 창립하였을 때, 임원 선거에서 간사에 선임되었다.⁷⁹⁾ 1930년 12월 한성의사회 총회에서 부회장에, 1931년 11월에는 회장에 선출되었다.⁸⁰⁾

김탁원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민족운동계에서도 핵심인물이었다. 신간회 경성지회의 간부로 활동한 바 있는 김탁원은 1931년 4월 조선물산장려회 이사에, 1931년 10월 조선물산장려회의 기관지를 발행하는 실생활사(實生活社) 이사에 당선되었다.⁸¹⁾

김탁원은 만주동포 문제에서도 크게 활약하였다. 1931년 7월 8일 만보산사건 및 배화사건(排華事件), 조난 중국인의 긴급 구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성각단체협의회'가 결성되었는데, 이때 실행위원이 되었다.⁸²⁾ 1931년 11월 조직체계가 더욱 탄탄한 '만주동포문제협의회'가 결성되었을 때, 김탁원은 상무위원에 선출되었다.⁸³⁾ 1932년 1월 만주동포문제협의회에서 동포들의 위문과 치료를 목적으로 특사(위문사)를 파견하게 되었는데, 그 때 김탁원이 특사로 선정되었다. 그는 1개월 동안 만주에 있는 각 수용소를 방문하며 동포들을 진찰하고 치료하였으며, 위문품을 전달하였다.⁸⁴⁾

1932년 2월 만주에서 돌아온 김탁원은 조선인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만주사변 발생 이후 피난 중 사망한 동포가 400여 명이고, 병인(病因)은 90% 이상이 마진(麻疹)이며, 사망자의 대다수가 어린이들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당시 기준으로 피난 중에 있는 동포들이 16,000명이고, 그 중 중

터, 『사진과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 의료 문화사』, 220쪽.

79) 「동아일보」 1930.2.23.

80) 「동아일보」 1930.12.8. ; 「동아일보」 1931.11.25.

81) 「동아일보」 1931.4.27. ; 「동아일보」 1931.10.14.

82) 「동아일보」 1931.7.9.

83) 「동아일보」 1931.11.27.

84) 「동아일보」 1932.1.28.

환자가 400명에 이르며, 마진과 폐렴 환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천연두, 성홍열 환자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영양이 부족하고 의료기관 및 위생 설비가 부족하여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구급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⁸⁵⁾ 한편 1932년 4월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는 만주 피난동포 위문과 관련하여 김탁원을 검속하여 취조하기도 했다.⁸⁶⁾

김탁원은 일제강점기 의료계 안팎에서 '민족운동권 인사'로 자리매김하였다. 경성의전 동창인 유상규는 김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아무 회의 무슨 幹事, 아무 회의 무슨 委員, 아무 회의 무슨 理事, 또 무엇, 또 무엇인 줄만 아는 사람을 위하여 金君은 의사라는 말을 해 둘 필요가 있는 줄 안다.⁸⁷⁾

2. 보건운동 주도

1931년 12월 15일 의료인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이 '보건운동사(保健運動社)'를 설립하였다. 설립 목적은 조선 민중에게 보건위생사상을 보급하고 보건위생을 대중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운동에 관한 잡지 및 도서의 간행과 강연회, 전람회, 강습회의 개최, 순회 진료, 학술연구, 실제 조사 등이었다.⁸⁸⁾ 특히 무산아동과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건강진단, 도시 세민층을 대상으로 한 객담검사, 농민층 대상 순회진료 등을 강조하여 민중의 건강에 주목하고 있음을 표명하

85) 「동아일보」 1932.2.19.

86) 「동아일보」 1932.4.17.

87) 太虛, 『동광』 제30호 중 「醫師 評判記(其二)」(1932.1.)

88) 「동아일보」 1931.12.17.

였다.⁸⁹⁾ 보건운동사는 1932년 2월 잡지 「보건운동」을 창간하였다.

보건운동사의 간부진 중에서 의사들만을 뽑아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 의사 출신 보건운동사 간부진

부서	직책	성명	출신학교	졸업연도
창립대회 임시의장		김탁원(金鐸遠)	경성의전	1921
서무재정부	부장	양봉근(楊奉根)	경성의전	1922
조사연구부	부장	이선근(李先根)	경성의전	1924
	부원	이용설(李容嵩)	세브란스의전	
	부원	김탁원(金鐸遠)	경성의전	1921
선전부	부장	이인규(李仁圭)	경성제대	1931
	부원	함태원(咸泰元)	경성제대	1933
의료부	부장	김동익(金東益)	경성의전	1924
	부원	고문룡(高文龍)	경성의전	1920
	부원	유상규(劉相奎)	경성의전	1927
	부원	기용숙(奇龍肅)	경성의전	1929
	부원	김정득(金丁得)	경성제대	1933

의사 출신 보건운동사 간부진은 모두 11명이었다. 그런데 출신학교별로 보면 경성의전이 7명, 경성제대 의학부가 3명, 세브란스의전 1명이었다. 즉 관립학교 출신, 특히 경성의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이유는 우선 중심인물인 양봉근과 김탁원이 경성의전 출신이라는 점에 있다. 서무재정부장과 「보건운동」 편집 겸 발행인을 담당한 양봉근은 보건운동사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다. 신간회 본부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신간회 해체, 즉 민족협동전선의 와해를 반대하였던 그는 신간회 해체 이

89) 신영전·윤효정, 「보건운동가로서 춘곡 양봉근의 생애」 참조.

후 농민, 노동자, 빈민 등 민중을 대상으로 한 보건운동을 진행하면서 민족협동전선의 부활을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⁹⁰⁾ 그래서 보건운동의 영역을 단순히 보건의료 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사회학, 교육분야, 체육분야 등 매우 폭넓게 설정하였다. 창립대회 임시의장, 조사연구부 위원을 맡은 김탁원도 ‘의료계의 민족운동권 인사’답게 양봉근이 지향하는 보건운동의 의미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의사 출신 보건운동사 간부진 중에는 3.1운동 참여 경력의 소유자가 최소 4명이 있다. 김탁원은 경성의전 학생대표로 활약하였고, 유상규는 3학년 학생대표로서 동급생 동원에 기여하였다. 양봉근은 부산 구포의 3.1운동을 이끌었고, 김동익은 예심 종결 당시 면소 방면되었지만 3.1운동에 참여하였다.

VI. 맺음말

경성의전 학생들은 3.1운동 당시 서울의 1차, 2차 시위에 적극 참여하였다. 적어도 전체 한국인 학생의 25% 정도가 참여하였다. 이후 경성의전 학생 김범수는 전남 장성과 광주에서, 양봉근은 경남 부산의 구포에서 항일운동을 벌였다. 이들의 활약은 3.1운동을 전국적인 독립운동, 거족적인 독립운동으로 폭발시킨 동력이 되었다. 아울러 일제의 식민통치의 실상과 본질, 해외 독립운동 소식 등을 담은 ‘지하신문’을 배포한 학생들이 있었다. 허정묵과 김상우는 서울 안국동 일원에서 「반도의 목탁」을 배포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90) 자세한 것은 신영전·윤효정, 「보건운동가로서 춘곡 양봉근의 생애」 참조.

1919년 5월 말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계된 비밀 독립운동 단체들이 결성되었는데, 3.1운동에 참여하였던 경성의전 학생들도 이들 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이의경은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의 편집부장을 맡아 기관지 「외교시보(外交時報)」를 발간하였다. 김영철은 대동단의 인쇄물 배포활동을 시도하다가 옥고를 치렀다. 나창헌은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대동단에 참여하여 이강공 국외 탈출 계획에 가담하였다. 또한 3.1운동 직후 국내에서 의열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3.1운동에 참여하였던 경성의전 재학생 및 졸업생이 그 지원활동을 벌였다. 재학생 오태영은 강우규 의사의 은신과 비밀연락을 지원하였고, 졸업생 허영조는 부산에서 의열단 단원의 요청을 받고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었다.

3.1운동을 준비하고 선도한 학생층은 1920년대 초반 학생단체인 '조선학생대회'를 창립하였다. 경성의전 학생인 이필근, 장세구, 이강은 조선학생대회의 제2기 지도부에 참여하여 서울의 학생운동을 주도하였다. 특히 하기순회강연회의 연사로 참여한 장세구, 이강, 이동영, 양봉근, 허정목 등은 3.1운동 참여 경력의 소유자들로서 순회강연에서 식민지 현실의 전반을 다루었고, 신사상 등을 소개하며 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1921년 경성의전 학내에서 일본인 교수의 망언으로 인해 항일 학생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3.1운동과 조선학생대회 참여 경력이 있는 양봉근, 장세구, 이동영, 전진극 등이 동맹휴업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은 경성의전 학생들의 민족문제에 대한 고민과 사상이 심화되고, 졸업 후 의사 신분으로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0년대 후반 국내의 대표적인 민족운동단체는 신간회였는데, 3.1운동 참여 경력이 있는 경성의전 졸업생, 중퇴생들이 신간회 본부 또는 지회의 간부로 활약하였다. 3.1운동 당시 경성의전의 학생대표로 활약하고 제3차 조선공산당의 핵심인물이 된 한위건은 신간회 창립준비위원, 신간회 간사로 활동하였다. 김탁원은 신간회 경성지회의 집행위원, 회계, 감사위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최경하는 신간회 목포지회 부회장을 맡아 신간회 본부와 목포지회의 투쟁방침 및 정책 등을 결정하는 데 기여하였다. 황해도 재령 출신의 정인철은 경성의전을 중퇴하고 1920년대 중후반 재령의 청년운동, 사회주의운동을 주도하였으며, 1929년 신간회 재령지회의 중심 인물로 활동하였다. 함남 북청 출신의 이강은 북청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1928년 신간회 북청지회의 재무부 총무간사에 선임되었다. 경남 부산 구포 출신의 양봉근은 1928년 신간회 울산지회장이 되어 울산지역 교육문제의 해결, 청년운동과 여성운동의 촉성 등에 기여한 후 1930년 신간회 본부의 검사위원장이 되었다.

1931년 5월 신간회 해체 후 만보산사건과 일제의 만주침략으로 만주 동포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때 만주동포문제협의회의 중심인물이 된 경성의전 졸업생 김탁원은 1932년 1월 특사로서 만주의 수용소들을 방문하여 동포들을 치료하고, 서울에 돌아와 현지의 실정을 보고하였다. 또한 경성의전 졸업생 양봉근은 1931년 12월 의료인과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과 함께 '보건운동사'를 설립하고 농민, 노동자, 빈민들을 대상으로 민족운동 성격의 보건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경성의전 학생들은 1919년부터 193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모든 유형의 항일운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10.21. 투고 / 2019.10.23. 심사완료 / 2019.10.24. 게재확정)

[Abstract]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Kyung Sung Medical School Students

Kim, Sang-tae

Influenced by nationalism, the hosting of the Paris Peace Conference, and the 2.8 Declaration of Independence, Kyung Sung Medical School student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first and second demonstrations in Seoul during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However, the third demonstration became impossible as police and military police were on heightened alert and schools closed down. Kim Beom-soo was involved in the demonstrations in Jangseong and Gwangju, South Jeolla Province, and Yang Bong-geun in Gupo, Busan. Their performance contributed to the explosion of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as a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and a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Some students, such as Huh Jung-mook and Kim Sang-woo, distributed “Jihangmun,” which contains the facts of Japan’s colonial rule, the essence of the 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abroad.

Soon after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a group of secret independence activists linked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formed in Korea, and students of Gyeongseongjeon joined the group. Lee Eui-kyung was the editor-in-chief of the Korean Youth Diplomatic Corps, and Kim Young-chul attempted to distribute the printed materials of the Daedongdan. Na Chang-hun

joined both the Korean Youth Diplomatic Corps and the Daedongdan to participate in Lee Kang-gong's escape plan. Right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there were also intense protests at home and abroad. Oh Tae-young supported Kang Woo-kyu's hideout and secret contacts, and Heo Young-jo raised fund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at the request of Kang Hong-ryeol, a member of the medical troupe, while opening in Busan.

In the early 1920s, a student organization called 'Chosun Students' was founded in Seoul. Kyungseong students Lee Pil-geun, Jang Se-gu and Lee Kang participated in the second leadership, while Jang Se-gu, Lee Kang, Lee Dong-young, Yang Bong-geun and Huh Jung-mook played a great part in the local lecture group. Their lecture covered the whole of colonial reality and gave directions for our people. Meanwhile, the student movement against Japan was launched in 1921 by a Japanese professor, Gu Bo, at the Kyungseong School. Yang Bong-geun, Jang Se-gu, Jun Jin-geuk and Lee Dong-young led the strike. The incident served as a chance for Gyeongseong students to express their deep concern and thoughts about national issues, an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national movement as doctors after graduation.

Graduates of Kyungseong in the late 1920s, dropouts served as new association headquarters or executive branch officials. Han Yu-gun, who became a key figure of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served as a founding preparatory committee member of the new association and a secretary of the new association. Kim Tak-won became an official of the Gyeongseong branch of the new association,

Choi Kyung-ha of Mokpo branch, Jeong In-chol of the second branch of the Joseon Dynasty, and Lee Kang, a senior official of the Bukcheong branch, made efforts to resolve pending issues in the community for the national united front. Yang Bong-geun also headed the Ulsan branch of the association and the inspection committee of the new headquarters.

After the disbandment of the new association in May 1931, the Manbo Mountain incident and the Japanese invasion of Manchuria made the issue of Manchuria an issue. In January 1932, Kim Tak-won visited the concentration camps in Manchuria to treat his compatriots, and returned to Seoul to report on the situation there. In December 1931, medical workers and leaders from all walks of life established 'health activists' and conducted health campaigns mainly for farmers, workers and the poor. With Yang Bong-geun at the center, graduates of Kyungseongjeon, including Kim Tak-won and Yoo Sang-gyu, led the health movement.

Eventually, Gyeongseongjeon student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arch 1st Movement were able to confirm that they participated in all types of anti-Japanese movements in Korea from 1919 to the early 1930s.

□ Keyword

Kyungseong Medical School,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Youth Diplomatic Corps, Daedongdan, Health Activists

[참고문헌]

『윤치호일기』 『騎驢隨筆』

「조선총독부 관보」 「시대일보」 「매일신보」 「조선중앙일보」

김상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3.1운동 참여 양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0, 2019.

김승태, 「한위건의 생애와 독립운동」, 『(사)대한민국역사문화원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9.

신영전·윤희정, 「보건운동가로서 춘곡 양봉근의 생애」, 『의사학』 14-1, 2005.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제2권 삼일운동사(상)』, 1971.

_____,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 1997.

_____, 『독립유공자 공훈록』.

경향신문사, 『내가 겪은 20세기』, 경향신문사, 1974.

김후경,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 광복출판사, 1983.

김희곤,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역사적 위상』, 한국의사100주년 기념재단, 200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976.

박경식 編, 『조선문제자료총서 (6)』, 아시아문제연구소, 1982.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_____,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33권 - 언론운동 -』,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2009.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사진과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 의료 문화사』, 응진지식하우스, 2009.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이미륵 지음·전혜린 옮김, 『압록강은 흐른다(개정판)』, 범우사, 2014.

장규식,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39권 - 1920년대 학생운동 -』,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2009.

주간시민사, 『名士交遊圖』, 주간시민사, 1977.

Mirok Li·이옥용 역, 『압록강은 흐른다』, 보물창고, 2011.

